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때 제 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나와의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산잔 국민 고등학교 졸업생 다음 세대 소망이 되다

지난 8월 산잔 국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이 잠실 중앙회사 장학 프로그램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7명은 사범대학교, 2명은 기'독간호대학, 1명은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기도제목이 하나 있었습



니다. 산잔 중고등학교에 기'독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정글 가운데 위치한 학교에 아무도 교사로 오려 하지 않았고 특히 기'독 교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사범대학교 보내는 일에 한국에 계신 많은 동역자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젠 수학, 영어, 국어, 컴퓨터 등 꼭 필요한 과목별 사범대학생이 20명이 되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국민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될 것입니다. 또 양호 교사와 산잔 마을 보건소 업무를 위해 간호대학에 입학한 2명이 졸업하면 산잔 학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산잔 학교 학생들을 섬기면서 이 학생들이 자란 마을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을 찾아 다니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데려다 산잔 학교에 입학시켜 말'씀으로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을 만나면 전'도처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KPM 김재룡 선생님이 학장으로 있는 살'렘신'학교에 졸업생 10명을 입학시켰습니다. 향후 상가우 가'핀교'단에 들어와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깔리만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정글에 위치한 산잔 국민 중,고등학교가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매주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범대학 예비 기·독 교사



산잔 국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4년 동안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기·독 교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손 모아 주세요. 감사한 것은 지난 8월 큰나무 회사에서 남자 기숙사 1년 연장 비용을 보내 주셔서 기숙사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자 기숙사도 3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순직하게 잘 연장 되도록 중보해주세요. 그리고 잠실중앙회사에서 칫솔, 치약, 비누를 보내 주셔서 잘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뭏마을 에바다 교'회 건축 공사 - 지붕 공사 중



상가우 루뭏 마을에는 300여 가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었던 마을에 2년 전 한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정집에서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8가정이 모여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 성도들 스스로 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주 회사에서 기쁨으로 지원하여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2가정이 더 늘었습니다. 12월 초에 헌당 예'배를 계획 중인데 건축 마무리 공사가 잘 되어 모범 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중보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글 기·독 학교

산잔마을 국민 중고등학교는 정글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점점 현대 시설을 갖추면서 가고 싶은 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반마다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시각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교실에 바닥 타일과 유리칠판, 그리고 철재 책,걸상을 설치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잠실중앙회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산잔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식당 내벽에 페인트칠을 하였고 전교생 건강검진을 통해 학교 내 돌고 있는 피부병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 주었습니다.



130년 전 한국을 품고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이 국민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대를 이어 갈 것입니다. 산잔학교 페트루스 목'사 딸 태리가 갑상선에 혹이 많이 생겨서 자카르타 소망교'회 폰티아낙 목장(오O규)의 지원으로 정밀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전'도처, 마젤 마을의 열정



잠실중앙회사에서 방문했을 때 마젤마을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전 교'회가 전혀 없었던 마을에 전'도처가 생겼고 15가정이 모여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을 땅을 이미 1년 반 전부터 구입해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전교인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함께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올 초부터 언젠가 세워질 교'회 건물 공사를 위해 예'배만 마치면 계곡에 가서 모래를 나르고 정글에 들어가서 나무를 모았습니다. 언제 건축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성도들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잠실중앙회사에서 귀국하자마자 우리가 기'도하며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깔리만탄 전역에 선포될 것입니다.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지도록 손 모아 주세요.

살'렘신'학교 실습 전'도사 파견, 졸업생 교단 합류



살'렘신'학교에서 매년 실습전'도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한 가'핀교'단에 실습전'도사를 통해 마을마다 사역자가 배치되고 새로운 전'도처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 2명 실습전'도사가 신'학교 졸업을 마치고 실습했던 깔리만탄섬에 다시 돌아와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피르만 전'도사와 아리스 전'도사가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하여 모범 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중보해 주세요.

스빠야 마을, 사데 마을, 응갈렛 마을 단기팀 방문

스빠야 마을에 전'도처가 개척되면서 좋은시민회사와 서울서문회사 단기팀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증을 하고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엔소용 마을에 좋은시민회사, 응갈렛 마을에 서울서문회사가 방문하여 오랜 동안 하지 못했던 페인트 작업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성도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함께 교제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행복해지는 교'회 되도록 손 모아 주세요. 살'렐'루'야!



인도네시아 권시민 M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2. 스빠야 마을 전'도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3. 루뭇 마을 예'배다 교'회가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게 하시고 공사 잘 마무리 되도록,
4. 새롭게 건축 시작하는 마젤 마을 성'도'들이 더욱 하나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할 수 있도록,
5. 동부 깔리만탄 지역으로 사역에 지경을 넓히려 합니다. 거주 비자를 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들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처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 선포되도록,
6. 엔소용 사데교'회에서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부'흥하는 사데교'회 되도록,
7.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모범 되는 삶 살아 가도록 손 모아 주세요.